강릉원주대신문

깨어있는 지성인의 올곧은 소리

발행인 반선섭 **주간교수** 김태완 **편집인** 김태현
주 소 (우)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기자실 강릉캠퍼스 033)640-2615 / 원주캠퍼스 033)760-8916 **행정실** TEL 033)640-2614 / FAX 033)640-2031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3년 03월 27일 월요일 98호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를 내딛다.



▲ 신입생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학생명예 선언의 시간을 가지고있음. = 이금희

지난 2월 27일, 신입생 입학식과 대학 생활 안내(OT)를 통해 23학번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1,20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행사는 캠퍼스별로 해람문화관과 태화홀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장, 교무위원, 학생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몇 년 만에 재개된 대면 행사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학생복지과와 총학생회 등 신입생들에게 활기차고 뜻깊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2월 26일, 총학생회 청연은 CPR 교육을 받았다. 종전에 보지 못하였던 사소한 부분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전의 입학식들과는 남달랐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입학식

입학식에서 반선섭 총장은 환영의 말과 함께,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밝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졸업 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를 계발하며 성공을 준비하라”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도 전하였다. 이어서 신입생대표 학생명예선언과 단과대학별 성적우수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적우수자 중 국어국문학과 권민지 학생은 “과 수석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하여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뜻깊습니다. 성적우수자 상을 받게 된 만큼 곧 있을 개강 후에도 늘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받겠습니다.”라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

입학식이 끝난 후 대학 생활 안내(OT)가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수강신청을 비롯하여 학사정보와 장학제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 받았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특강과 취업진로개발 특강. 졸업 동문과 학부모들의 신입생 축하 영상 이벤트까지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얻는 시간이었다. 신입생을 위한 대학 생활 안내(OT)는 입학식과 다르게 단과대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대학 생활 안내(OT)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40여명은 학교 홍보대사인 하랑의 진행으로 학교버스로 이동해 대학 본부에서 시작하여 중앙도서관 방문을 끝으로 캠퍼스 이곳저곳을 소개받았다. 투어에 참여한 신입생 학부모는 “이번에 입학식을 보고 학교를 믿고 보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캠퍼스 투어 등 학부모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어 우리 자식이 다닐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요즘 취업에만 집중하는 학교도 많은데 강릉원주대학교는 배움과 취업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간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대학 생활 안내(OT)는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세심한 배려에 참여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학부모를 위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으로 캠퍼스 이곳저곳을 소개하고있음. = 이금희



▲ 3부 행사에서 동아리 축하공연을 하고있음. = 이금희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행사

마지막으로 진행된 3부 행사에서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소개와 동아리 축하공연, 신입생 장기자랑 등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동아리 축하공연은 동아리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고, 공연 후 에브리타임에서는 해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환영 행사는 신입생들과 즐거운 소통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모든 행사는 긴 시간이었음에도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이 더욱 강릉원주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학과 함께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있을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이 모두 순탄하길 바란다.

이금희 기자

3년 만에 재개한 해람 해외봉사 캄보디아에서 나눔



▲ 캄보디아 Srah Kwav(스라 크와브) 초등학교에서 해람 해외봉사 단원이 초등학생들에게 봉사를 진행함. = 대외협력본부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세계 각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고 나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다양한 운영단체들 중 한 곳을 고르기란 쉽지 않고,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꿈꾸기도 한다. 많은 해외 봉사단이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 해람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 대학 해람 해외봉사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의 국제 경험 확대와 자기개발 능력 함양,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첫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쳐 10여 년간 몽골,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활발히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확산으로 2020년 1월을 끝으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듯 싶었으나, 지난 1월 그 동안의 공백기간을 깨고 2022년도 동계 제10기 해람 해외봉사가 캄보디아에서 재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람 해외봉사단은 한국 대학 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동계 대학 자체 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은 적격성, 사전조사 충실도, 타당성, 안정성, 전문성으로 평가한다. 대외협력본부 백진아 담당자는 "정확한 공모전의 심사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학은 기본 교육봉사와 치과 의료 봉사라는 차별성으로 약 15년간 총 26회의 해외 봉사 경험을 종합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해외 봉사는 대학 생활을 하며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보통 해외봉사는 체류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1년으로 학업과 봉사를 병행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 해람 해외봉사는 최소 3개월 전 봉사단 선발과 동시에 준비과정을 거쳐 방학 일정기간 동안 해외봉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학업과 봉사활동의 병행이 가능하다.

이번 2022년 동계 해람 해외 봉사는 캄보디아 Srah Kwav(스라 크와브) 초등학교와 그 일대에서 교육봉사와 건축 봉사, 치과 진료 등 다양한 나눔 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초등학생 약 200여 명이며, 이 외에도 집짓기와 울타리 제작 등의 건축 봉사와 300여 건의 발치 및 치료 등 치과 진료를 하였다.

이번 해람 해외 봉사단장 치의학과 유기연 교수는 "개인적으로 봉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계기였다. 여러 측면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봉사지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만 있고, 받는 사람들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해외 봉사는 일차적으로 낯선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 같다. 교육봉사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팀을 꾸려 봉사 내용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높은 성취감을 유발한다. 아마 내향적인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해외봉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이번 해외 봉사를 다녀온 영어영문학과 이도윤 학생은 "내가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는 계기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다녀온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외 봉사가 누구에게는 하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나 꿈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저 사람들이 한 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좋았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들 다르겠지만 분명 남는 게 있다."라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만큼, 봉사단원 모집에 어려움은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외협력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매년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해외 봉사단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해람 해외봉사단은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와 동계기간 모두 봉사단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람 해외 봉사단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이예진 기자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친구 '또래 상담자'



▲ 학생 심리적 안정을 위해 '또래상담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노혜원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또래상담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래상담자는 친구들의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서로의 담을 허물어 친구를 맺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면서, '또래상담자'는 대학 생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선·후배나 친구 관계의 문제해결력 능력을 길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거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상담센터로 연계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2학기 1차로 모집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이 10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교육 4회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기본(기초) 교육 이수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가 상담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 최미화 담당자는 "또래상담자는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또래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래상담자 친구들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통해 문제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전문 상담가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래상담자 상담을 통해 비관적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때 또래상담자는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학습과 진로 고민에 있어서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또래상담자 교육받은 학생들이 더 많이 확대된다면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또래상담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밝혔다.

또래상담자로 참여한 권구철 학우는 "작년부터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였어요. 교육받은 후,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학생을 상담했고 그 중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받은 상담과 거의 일치한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도 있었어요. 설마 내가 수년간 전문적인 수련을 거친 의사 선생님의 실력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동안 쌓인 나름의 성과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상담자로 활동하며 비전문가가 아닌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는 묘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만큼 공감과 위로의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또래상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또래상담자' 활동에 공감하였다.

학생상담센터는 2022년도 2학기에는 기본 교육 활동에 그쳤지만, 이를 보완하여 2023년도에도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안전을 위해 '또래상담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노혜원 기자

강릉원주대학교 ROTC "비무제"



▲ 제163 학군단이 주최한 2022 강릉원주대 비무제를 진행함. = 김건

2022년 12월 2일 강릉 세인트컨벤션 4층 비치홀에서 제163학군단이 주최한 2022 강릉원주대 비무제가 진행되었다. 2022년 비무제를 진행한 강릉원주대 163 학군단은 1983년 창설되어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군단이다. 작년 12월 2일 진행된 비무제는 약 51명의 학군단 인원과 30명의 내빈 및 초대손님들이 참석하였다. 내빈과 손님들은 4층 입장과 동시에 후보생들의 예도관문을 통과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모든 내빈과 학군단 후보생들이 참가한 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른 뒤 학군단장의 개회사를 기점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은 "비무제를 축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축전을 전했다. 이어진 축전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부총장인 정태윤 교수는 "내년에는 학군단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후보생들은 남은 훈련과 교육을 잘 이수하여 좋은 장교로 임관하길 응원하겠다."며 학군단의 비무제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축사가 끝난 뒤 학군단 후보생들이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과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의 소감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서 비무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예도와 무도(태권도 금강 품쇄)를 진행했다. 무도 마지막 순서에서는 163 학군단의 비기인 장풍을 시범 보이며 많은 후보생들과 초대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준비한 모든 무대가 끝나고 차려진 만찬을 자유롭게 즐기며 후보생들과 내빈들 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경환 학군단장은 "전통 있는 비무제를 주관하게 되어 좋았다.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생들이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한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고 이번 비무제를 계기로 학군단 내 교류의 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진행된 비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학군단 간의 교류와 더불어 학교 내 학우들 간의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김건 기자

함께하는 우리, 대왕감자전



▲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대왕감자전' 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스포츠 교류전 행사를 진행함. = 김건

성공적으로 진행된 스포츠 교류전 '대왕감자전'

지난 2022년 12월 1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강릉권 4개 대학이 연합 스포츠 교류전 행사를 진행했다. '대왕감자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는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가 참여했다. '대왕감자전'은 2017년 강릉지역 4개 대학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약 체결(2017. 4. 5)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첫 회 스포츠 교류행사는 2017. 10. 31.~11.1. 양일간 진행되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워크숍과 기타 연구시설 간 협력은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다가 2022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재개된 교류전의 반응은 준수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지원받아 진행된 본 행사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피구, 계주 5종목으로 진행 되었으며 각 대학별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총 400여명이 경기 및 응원을 펼쳤다.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교류전의 정례회를 통하여 강릉지역 대표 대학문화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강릉지역 총학생회 연합회 차원에서 기획 및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대왕감자전' 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트로피와 상품을 증정함. = 김건

강릉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기타 영동권 대학의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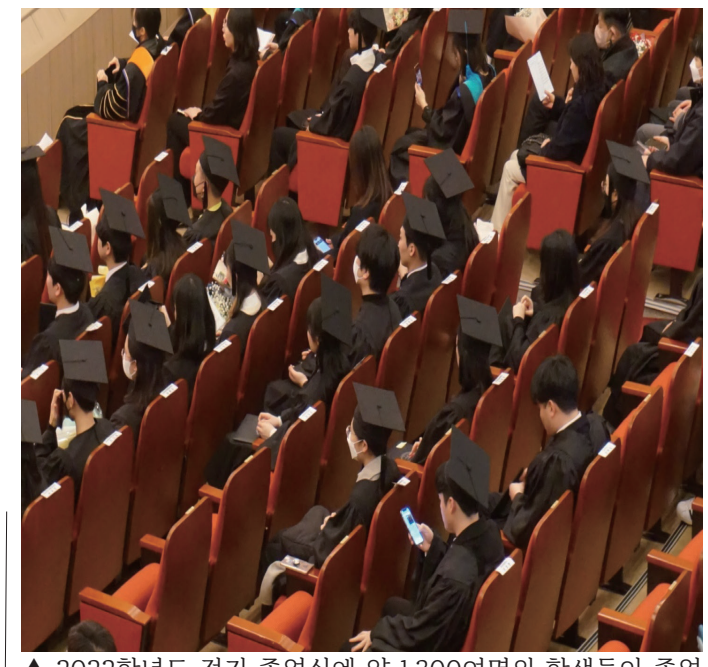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단절된 대학 간 교류의 시작을 알린 '대왕감자전'이 강릉권 4개 대학 이외에 영동권 대학 간 교류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 해당 가능성에 관해 학생복지과 최길순 담당자는 "강원권까지는 불확실하지만 확대한다면 영동지역을 묶어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원도 측에 예산을 신청해 지원받는다면, 강원권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확보 차원의 지속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2023년까지의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작년 교류전 4개 대학의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간 교류의 확대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 이전에 대학 간 교류에 중점이 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간 교류 의향도 중요하다. 위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교류전의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매년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회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각 대학 학생회의 입장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학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강원대학교와의 동아리 교류전을 '대왕감자전'과 접목시켜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교류가 가져올 새로운 자극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의 마무리를 잘 지어준 '대왕감자전'은 각 대학 간 '교류' 혹은 '연결'로 우리가 나아갈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는 무뎌진 '코로나로 인한 단절 혹은 일상의 붕괴'라는 말은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결 혹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반의를 가진 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에 대한 인식의 저하로 인한 신입생 및 편입생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 체육대회 교류전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학술연구 교류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본다.

김건 기자

졸업,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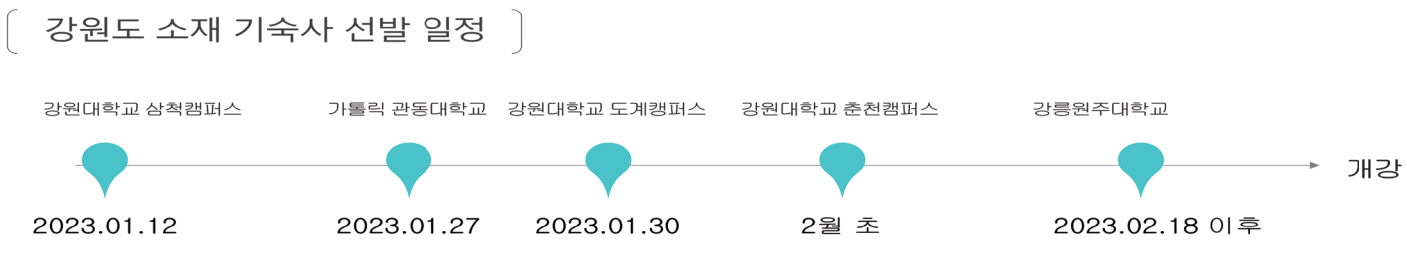


▲ 2022학년도 전기 졸업식에 약 1,300여명의 학생들이 졸업함. = 김건

2023년 2월 22일 강릉원주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약 1,300여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 맑은 날씨에 진행된 졸업식은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지인들이 모였다. 22일 14시에 진행된 졸업식은 반선섭 총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박사, 석사, 학사들의 학위수여가 진행되고 우수졸업자들의 상장수여와 교가 제창이 끝난 뒤 식은 폐막했다. 여러 졸업생들은 학교 잔디밭에서 지인들과 사진을 찍고 학사모를 던지는 등 각자만의 방식들로 졸업을 만끽했다. 지도교수님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해양식품공학과 유상권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공부하고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마무리 짓고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기에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 미래들을 축복한다."고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문대학 우수졸업생 중 한명인 일본학과 16학번 신민우 학우는 "군 휴학과 유학을 포함해서 7년 가까이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남지만 제 이름 또한 대학에 남길 수 있어 뿌듯하네요. 이제는 사회를 향해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졸업의 소감을 밝혔다. 각자만의 시간으로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7년까지의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 그들의 경험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좁아진 취업시장과 고물가시대라는 현실을 잘 타개할 수 있길 기원한다.

김건 기자

얼마 남지 않은 개강, 학생들 발만 동동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생활 공간을 마련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학생 생활 공간으로 학생생활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은 신입생 신청자에게 모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사 인원의 선발이 적어진다. 또한 재학생 선발 기준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 합격선은 비율에 따라 매 학기 달라진다.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학은 학생생활관 선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학생생활관 사용 희망자를 신청받은 후 수용 인원에 맞춰 합격생을 발표한다. 그 후에 자신이 사용할 관(명진·사임·율곡·솔향·해송)과 호실을 선택한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학생생활관 비용을 납부한다. 위 과정은 최초합격자 한에서만 해당하며, 추가합격자는 학생생활관 비용 납부를 기점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가 문제이다.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학생의 경우 매 학기 성적 합격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합격 여부를 모르게 된다. 만약 입사자로 선발되지 못한다면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강일 기준 1개월 이전에는 방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은 추가합격 통보가 늦어 1개월 이전이 아닌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회과학대학 김남은 학우는 "제가 2학년 1학기에 학생생활관을 신청하였어요. 그런데 제 성적이 기숙사 성적 합격선과 비슷해서 합격이 될지, 안될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해서 주변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최소 한 달 전에는 방문해야 한다고 그러는거예요. 학생생활관 추가합격 발표를 빨리해주면 속 시원하게 자취방을 구하는데 위약금 문제랑 학생생활관 발표 문제랑 겹쳐서 자취방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우리 대학 기숙사 선발 일정은 이와 같다. 2023년도 1학기 선발 기준 학생생활관 희망자 신청은 1월 20일에서 2월 3일까지이고 선발자 발표는 2월 10일이다. 호실 선택은 남자, 여자 각각 2월 13일, 14일이다. 마지막으로 비용 납부는 2월 16일에서 2월 17일까지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생활관 추가합격을 통보를 받는 학생은 2월 18일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는다.

우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교 학생생활관 추가합격자 발표 날짜를 홈페이지 정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학생생활관 추가합격자 발표를 1월 12일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는 학생생활관 비용 납부일을 기준으로 2월 초 발표한다.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는 추가합격자 발표를 1월 30일에 진행하였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우 학생생활관 비용을 1월 27일까지 납부 후 이를 기점으로 1월 28일 이후에 추가합격 통지를 받게 된다. 주변 대학의 추가합격자 발표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은 매우 늦은 시기에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날짜를 조정하거나 선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생생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다. 담당자는 "현재도 재학생 추가합격 발표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앞당길 수 없는 이유는 신입생 선발을 100%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야 재학생 선발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10일에 신입생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더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학생생활관은 대학의 부속시설인 만큼 학생을 배려하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과정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학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추가합격을 기다리다가 생활 공간을 마련할 시기를 놓치는 학생을 위해 학생생활관은 추가합격자 발표일 또는 생활관 비용 납부 과정 순서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혜원 기자

사 설

끝과 시작 그 사이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 아직은 찬바람과 함께 남아있지만 갈수록 따뜻해지는 해가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듯, 우리는 '끝'이라는 마지막이 되는 지점과 동시에 '시작'이라는 출발선과 마주하고 있다. 2월에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은 학생 신분의 끝과 사회초년생의 시작을, 2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미성년의 끝과 성인으로의 시작을 같이 맞이한다. 졸업식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길었던 학생 신분을 끝내고 사회로 나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저 즐겁기도 한 듯 각각의 얼굴엔 다양한 표정이 어려있다. 그런 표정들이 무색하듯 입학식에선 신입생들의 웃음과 가족들의 대화가 다시 캠퍼스를 덮는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끝'과 '시작'을 맞이한다. 마침내 '끝'을 마주한 우리지만 나아가야 한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강요 아닌 강요에 다시 '시작'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마침표는 뒤로 미룬 채 잠시 쉼표를 찍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숨을 고를 벤치도 마실 물도 없는 끝없는 마라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졸업생들은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가 다시 치열한 경쟁의 바다에 뛰어들기보다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들을 기록할 해변에 앉아 쉬어가도 좋다. 신입생들은 적응하기도 벅찰 정도의 새로운 일상들과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새로운 나의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힘들었던 수험생활과 즐거웠던 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그림에 사인을 하며 미성년의 초상화를 마무리 짓길 바란다. 새로운 '시작'은 늘 중요하고 무엇보다 목표에 집중해 나아가야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기 바쁜 지금의 우리에게 멈추어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다그치고 다시 사회라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검수도 하지 않고 자신을 올리면 완성품이 아닌 어딘가 불량인 재입고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포드의 창시자이자 벨트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의 창시자인 헨리 포드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디자인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기능을 갖춘 멋있는 자동차여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과 시작의 사이에 잠시 서서 끝을 만끽하며 각자의 취향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한다면 요즘같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라서 '쉬는 날 하기 좋은 것들' 혹은 '취미로 좋은 것' 등을 찾아서 하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루종일 한다던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러 이곳저곳 카페를 다녀본다던가, 영화를 여러 편 보면서 평론가가 된 듯 무슨 글이든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적어봐도 좋다. 끝과 시작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하던 우리의 반짝일 '시작'과 성대할 '끝'을 꾸며 줄 장식들로 각각의 위치에 자리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졸업생들에겐 화려하진 않아도 밋밋하지 않을 앞날이,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겐 호기심 가득 할 두 눈에 담을 세상이 동그랗고 부드럽길 바라며.

한 컷 속으로



우리에게 힘이 된 3일

2022년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장님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총학생회, 학부모 등은 기말고사 기간인 2022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 시험공부로 지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학생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커피 등 음료뿐만 아니라 빵과 핫팩도 함께 나누어 주면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어 지치고 힘든 날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하나가 우리의 하루에 작게나마 행복을 주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 3일 여러분은 어떠했나요?

김태현 기자

경호일언

사유(思惟)한다는 것



이선우 (영어영문학과 교수)

사유하는 것, 즉, 'thinking'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고로 '사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을 뜻한다. 예술품 중에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thinker)'이 이 주제를 다룬 것으로 가장 유명할 것이다. 깜짝 놀라겠지만 이 작품의 원본이 우리나라에 있다. 아마도 호암미술관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호암미술관에 있는 '지옥의 문'은 원래 로댕이 제작한 형틀에서 찍어낸 7번째 에디션이다. 그러니까 1984년 삼성이 이 작품을 구입했을 때 세계에서 오직 7개의 진품이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형틀은 계약에 의해 최대 12개의 에디션 만을 찍기로 되어있어서 그 후로도 12개가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생각하는 사람'은 워낙 인기있는 작품이어서 별도로 독립된 조각을 다시 만들어 따로 존재하는 작품들도 있다.



그런데 조각되어있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가 자못 궁금하다. 원래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시 『신곡』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문에 조각되어 있는 내용들도 모두 『신곡』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시인(poet)'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사람은 단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테가 '지옥의 문'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는 지옥의 문에 이렇게 새겨진 글귀를 보았다고 한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신곡』 지옥편 제3곡) 아마도 단테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게 되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의 유명한 예술품이 있다. 우리가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데, 끝없는 물질의 순환과 우주의 확장을 상징하는 영상 '순환(Cycle)'을 감상하며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듯한 고요한 공간에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로 지정된 두 분의 미륵이 나란히 앉아 있다.

'반가 半跏'는 양쪽 발을 모두 걸친 '결가부좌 結跏趺坐'에서 한 쪽 다리를 내려뜨린 자세이다. '사유 思惟'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반가의 자세로 한 손을 뺨에 살짝 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불상'을 반가사유상이라고 한다. 만들어진 재료는 금동이며 인물은 미륵보살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를 뜻하며 미륵은 부처님께서 미래에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예언한 제자이다. 그래서 보통 이 반가사유상이 짓고 있는 미소를 미륵보살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두 유명한 작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각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고, 또 어떠한 생각이 가치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해람인들은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을까? 해람지라는 공간에서 미래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그 미래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사유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한다.

대학신문고

대학신문고는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화젯거리, 논쟁거리 등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갖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해당 코너에서는 "에브리타임" 등에 게재된 학우의 글을 가급적 그대로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익명은 글쓴이의 허락 없이 게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2월 20일, 에브리타임, 등록금 납부 문자 보내지 말고
등록금 납부 문자 보내지 말고 수업 인원이나 어떻게 해보라고
- 신입생이 듣고 싶은 강의, 많이 듣고 싶은 강의, 많이 듣게 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해람교양은 특히 인원이 신입생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신입생이 해람교양 안 들음. 그런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나도 신입생 때 몰라서 이러고 있지만 아예 1학년 필수로 박아두던지 생각하니까 화나네 돈이랑 시간 아깝다.
- 신입생 때 관심 없는 것만 들음 그냥 최대한 인원 분산시켜서 폐강 방지하려는 것 같기도 함.
☞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이 가져야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수강인원 분배가 불균형으로 될 확률이 높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학생과 조율 후 수업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 3월 8일, 에브리타임, 기숙사 불시 점호?
- 이제 성인인데 뭔 군대도 아니고 불시 점호임 진짜... 이게 맞아요?
- 자거나 쉬거나하는 친구들의 사생활 존중은 안 하나보네요.
- 외박계 사용을 권장하고 약간 강요하기 위하여 불시 점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불시 점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숙사 운영하는 거 맘에 안 들어서 일찍이 자취함 여름엔 에어컨 안틀어줘 겨울엔 난방 안틀어줘~ 그리고 이외에 자기들 편할려고 하는 거 짜증남.
- 자취해 서울도 아니고 강릉이라 저렴한데 왜 긱사를 다님? 사람들 빠지다 보면 학교도 정신차리겠지
☞ 외박계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학생들의 사생활 존중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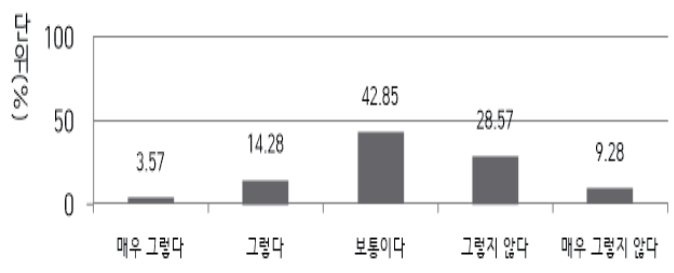
당신은 학교 신문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교와 학생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고 객관적으로 재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강릉원주대 신문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현(現) 신문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아가 구독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학생들과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우리 대학 신문의 인지율

먼저 강릉원주대 신문의 인지도를 조사해 재학생들이 우리 대학 신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내 언론의 인지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3.57%), 그렇다(14.28%), 보통이다(42.85%), 그렇지 않다(28.57%), 매우 그렇지 않다(9.28%)로 학내 언론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우리는 해당 설문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알고는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으로는 '신문에 대해 잘 몰랐다', '신문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신문의 홍보가 부족하다' 등이 있었다.

<학내 언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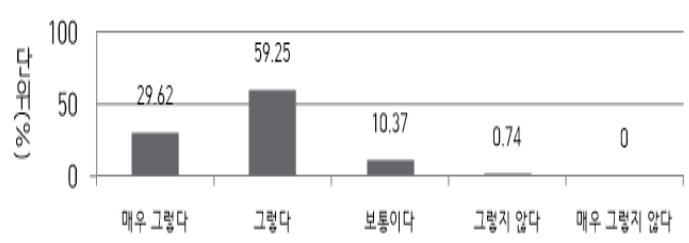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여 합이 98.5%

■ 학내 언론의 필요성

학내 언론 및 신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인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내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학내언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9.62%), 그렇다(59.25%), 보통이다(10.37%), 그렇지 않다(0.74%), 매우 그렇지않다(0%)로 과반수 이상이 학내언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은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들을 수 있는 수단이다', '언론은 우리의 눈이 되어준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와 소통하는 소중한 창구다', '언론은 언제 어디서든 중요하다'등 학우들은 학교와 학생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신문사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학내 언론의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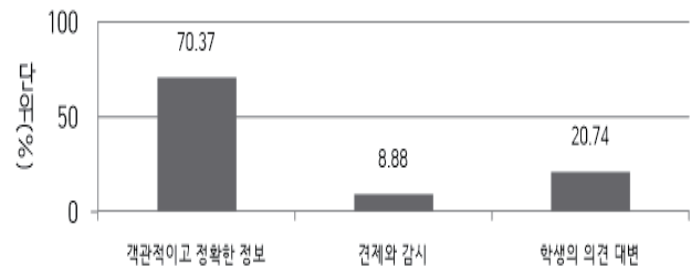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만 표시하여 합이 99.9%

■ 학내 언론의 역할

학내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70.37%), 견제와 감시(8.88%), 학생의 의견 대변 역할(20.74%)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학내의 문제 또는 소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학내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여 합이 99.9%

■신문사가 가야 할 길 보완할 점

언론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학우들의 답변을 토대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고안해보았다. 유튜브나 SNS 등을 활용한 모바일 뉴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에 학내 신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무엇이 있을까? 기타 모바일로 접하지 못하는 학내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이러한 학내 정보와 지역사회 소식 등을 담은 신문을 학우들이 원활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학내 언론의 발전을 위해선 학우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학우들과 대학 내 구성원들이 학내 언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비판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기자

잡히지 않는 달콤한 향기, 장학금

장학금은 단순히 생각하면 대학생들에게 효익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여 발생한 생각의 오류이다.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누군가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달콤한 향기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이 되는 장학금의 두 얼굴을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문제로 인한 난항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래 장학금이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목적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반해 현재 국가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목적보다는 학업보조금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으로 많은 학생이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좌우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분위 1~8구간을, Ⅱ유형은 1~9구간을 지원 자격 대상으로 한다. 즉, 소득분위가 다음보다 높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분위는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모님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이번 달에 그만두는 경우 당장 소득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퇴직금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제3금융권의 사채를 반영하지 않아 소득산정이 높게 되어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집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대학생의 생활을 반영치 못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득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최신화 신청이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신화 신청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대책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 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 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산정된 소득분위에 의문을 품어 최신화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현재상황이 잘 반영되어 산정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산정될지 걱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걱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안을 구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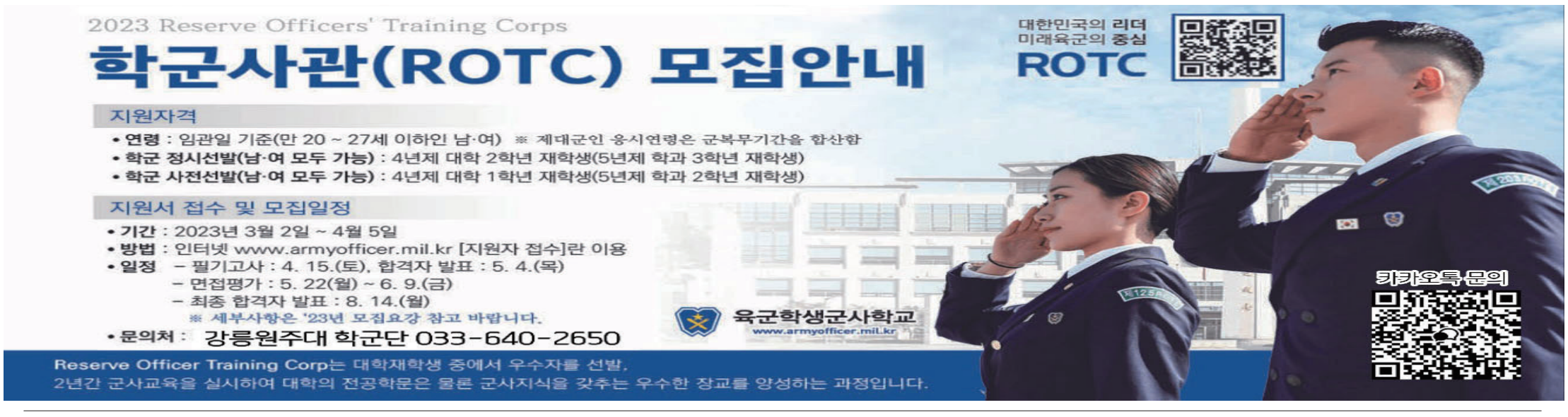
이뿐 아니라 다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러한 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자녀 장학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은 다른 가정에 비해 학업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8구간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소득분위 기준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장학금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이다.

본 의도가 퇴색되고 있는 성적우수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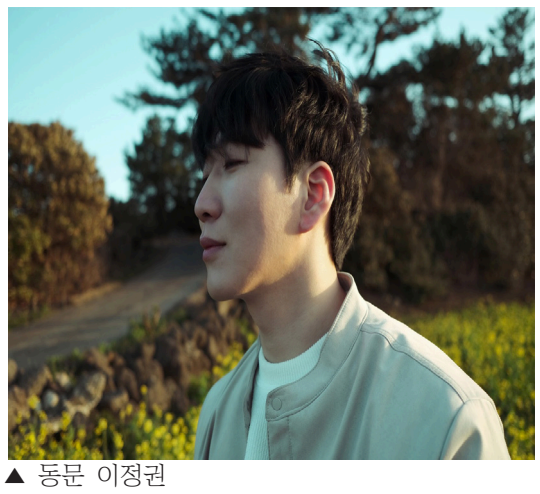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외장학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지급되는 성적우수장학금은 본 의도와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 교내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학비 부담 완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양상을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될 때 성적의 순위가 높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학비가 모두 충당되어 그 다음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그 결과 비교적 좋은 성적이 아닌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성적장학금에 대하여 자치행정학과 노혜원 학생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우수장학금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성적우수장학금 못 받는데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우수장학금의 본 의도가 퇴색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퇴화하게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장학금 외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다른 교내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은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의 존재가 되어 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장학금으로 인해 웃지 못할 상황을 겪으며 오히려 '실'의 존재로 인식으로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의 효익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얼굴 '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금희 기자



동문 연어장인 ' 이정권' 을 만나다.


▲ 동문 이정권

'연어 장인'이라 불리는 가수 이정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정권은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15년에는 노래자랑에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불러 대상의 명예를 얻은 뒤 '싱어게인' '복면가왕'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대학 동문이자 선배인 이정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1. 2023년 신입생 & 재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쌓아 알찬 대학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재학생분들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실 것 같습니다. 남은 학교생활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남은 기간 많은 것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시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만끽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수라는 도전을 하셨는데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는 회사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익도 안정적인 스케줄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함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후배님들도 나중에 저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후 이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우리 대학에 여러 행사에 참여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2022년에는 대동제라는 학교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것이라 너무 설렜습니다. 그리고 후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또한 가수라는 입장으로만 간 것이 아닌 선배라는 생각도 들어 학우들과 교집합이 생겨 더 마음이 가고 재미있는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대동제 외 여러 행사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 특별한 추억이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2023년 계획 혹은 목표를 말해주세요.

올해는 음악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후배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생겨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

구강 관련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정세환 교수님'


▲ 정세환 교수

지난 2022년 12월 우리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치과 의사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함께 다양한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세환 교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온 시점은 2002년이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 전공은 '예방 치과'입니다. 큰 범주로는 '보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주체라는 의식이 보편적이어서 '보건 행정'이라는 말보다는 '건강 정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정책 중 구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 위한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울러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자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연구하는 테마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개발 또는 추진하는 데 있어 공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인 '건강 보험성 강화'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성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필수 보험 의료를 국민에게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2022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릉원주대학교 뉴스에서 치과의사로서 헌신적 봉사활동과 건강 보험성 제도 개선 및 국민 의료보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봉사활동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셨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 치과 주치의'라는 사업을 기획, 개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추진 과정에서 시범 사업 진행까지 13년에서 14년이라는 기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립건강종합기획이라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제2기부터 제5기까지 구강 건강관리 분야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주도적인 참가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의료계에 민감한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선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공급자인 의사와 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 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합당하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칭하는 급여, 비급여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필수 구강 보건 의료가 더욱 많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장관상이나 이와 비슷한 큰 상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스펙을 목적으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표창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잘 보이게 됩니다. 이를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 결과물로서 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 지속하는 과정으로 상을 받게 만듭니다.

5.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사회적인 시각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수도권을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주눅이 드는 학내 분위기, 교직원 또한 그렇습니다. 대학 모든 구성원이 수도권 중심의 형태에 대해 힘들어하고 주눅 드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순위를 정해서 경쟁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회가 만들어 낸 허구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편입 또는 재수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사나 박사 학위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자신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서울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자기 계발이 아니라 무의미한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 지역, 수도권 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도권 사람을 동경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행복해질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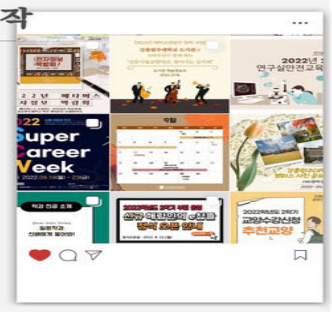
HARANG
HONORARY AMBASSADORS FOR GWNU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하랑

"너랑 나랑 하랑"

'하랑'은 '함께하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을 담은 순우리말로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대학 생활에 더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SNS 콘텐츠 제작
홍보대사 하랑 공식 인스타그램
@ gwnu_harang



홍보대사 '하랑'은 SNS 제작 활동을 통해 학교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홍보대사 하랑 공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YOUTUBE 콘텐츠 제작
유튜브 공식 채널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하랑'의 YOUTUBE 팀은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함으로써 학교를 홍보하고,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있다.

› YOUTUBE 콘텐츠
- 고민 파괴, 하랑의 참견
- 대동제 브이로그
- 하랑 콘텐츠 교육 우수 작품 등



동영상, SNS 제작 문의
대외협력실 033-640-2734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학생회



▲ 총학생회장 곽태웅



▲ 총학생부회장(강릉) 지수빈



▲ 총학생부회장(원주) 강동준

2023년 강릉원주대를 이끌어갈 총학생회가 정해졌다. 2022년 12월 7일에 진행된 강릉원주대 3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청연'이 당선되었다. 올해를 이끌어갈 총학생회 당선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1. 37대 총학생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학우분들의 투표 덕분에 학생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투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장 선거, 진행될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앞장서겠습니다.

2. 슬로건을 "맑고 깨끗한 인연 청춘을 빛낼 인연 청연"이라고 했는데 인연에 중점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저희의 슬로건이 "맑고 깨끗한 인연 청춘을 빛낼 인연 청연"입니다. 먼저 한자 풀이를 하자면 맑은 청(淸) 인연 연(緣)입니다. 맑고 깨끗한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풀이와 엮어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은 학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청춘의 장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중한 장소에서 학우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을 생각하고 청렴한 총학생회라는 인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이전 총학생회들과 차별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도전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작년 36대 총학생회가 강릉과 원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공동 구매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공약들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게하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증명해드리고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4. 캠퍼스 교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캠퍼스 교류 활성화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릉·원주캠퍼스의 교류가 될 수도 있고 근처 대학과의 교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원주캠퍼스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GWNU 체육대회 교류전과 국토대장정을 필두로 강릉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강릉·원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근처 대학과의 교류는 한라대학과 봉사활동, 대왕감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할 공약과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공약은 총장 선거 투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예약 어플 제휴, 야외벤치 설치 및 재정비,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식 행사, 소통의 날 행상, 발대식을 1학기 초반에 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6.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선거에서 2차까지 갔지만 투표해 주신 학우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청회와 선거기간에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임기 중에 열심히 발로 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충분히 꼬집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우분들이 박수 칠 만큼 잘한 점이 있다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학우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풍부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연 인스타그램은 gwnu37_chungyeon

김태현 기자

빛나는 단과대학 학생회

only:one

-하나뿐인-
모두가 하나되는 학생회
1. 하나뿐인 모음zip
- 전공로드맵, 취업, 대외활동, 자격증 정보 제공
2. 인싸(인문대 사람들)
- 인문대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정보 제공
3. 써포트 up!
- 학과 필요 물품 지원 사업



-로운-
단비같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1. 사회과학대학 화장실 스피커 설치
2. 사회과학대학 골든벨 개최
3. 사회과학대학 학과별 학업물품 지원

Grin

-그린-
학생들을 위한 자연대를 그린다.
1. 자연인의 밤
2. 바우길 걷기
3. 물품대여

바라는대로 다

-바다-
'바' 라는 대로 '다'
1. 월간 생명대 생일 추첨 행사
2. 생명대 체육대회 & 미니카페
3. E-스포츠 대회

zero

-Zero-
'z 26번째 알파벳으로 E는 engineering R은 reverse 바꾸다 0는 Organization 26대까지의 공과대학 학생회를 뛰어넘어 우리 27대 공과대학 학생회 ZERO가 더나은 공과대학으로 바꾸어 보겠다
1. 공대 열람실 활성화
2. 공과대학 가을 체육대회 개최
3. 공과대학 E-sports 대회 개최



-백호-
늘 흰 빛으로 용맹하고 담대하게
1. 예체대 건물에 대한 명확한 흡연구역 지정과 흡엽 부스 설치
2. 학생 생활개선 물품 항시 구비와 지원
3. 외부업체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상생

다원

-다원-
모두가 '다' '원' 하는 000
1. 다원 익명 오픈채팅 건의함 개설
2. 매 달 생일자 이벤트
3. 화장실 내 구강청결제 구비

-이구동성-
한마음 한뜻으로
1. 치학 1호관 지하 운동시설 활성화
2. 간식행사 진행
3.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

문학의 길

꿈

국어국문학과 20220011 이진희

여름 속 해변의 모래알 달구어
자글자글 모래알 사이로
숨 못 쉬는 걱정 차르륵 밀려 다가와

해는 중천 뜨거움은 최고에 다다라
자글자글 얼굴, 그 얼굴
달궈진 모래알 위 신나게 달려

그저 어딘가에 있을 무엇을 향해
곧 쓰러질 위태로운 마음 가지고
웃고 또 웃으며 휘영청 뻗는다

그래, 어찌 불구 하나 없이 살아가나
있어야 시원한 바람 타고 날아간다
그렇게 깎이어 닮아갈 테야

맞지, 뜨겁고 찬 데가 괜히 있나
있어야 둘 사이 따스한 간격 오래간다
그렇게 섞이어 비슷해질 테야

해변 모래알 속 어딘가
해 떨어진 산이 보낸 커튼
그 아래 고이 접었던 숨을 뱉는다

그득히 찬 숨이 차차 나가고
유달리 뜨거워 놀래 삼킨 숨까지

끌어내 벌그데데한 더위를 토한다
여름밤 속 모래알 네가 그러해
순간에 달아올라
순간을 날아올라
순간만 식어내려

열기를 삼킨 모래알 해변을 뒹군다
뒹굴수록 달라붙는 열기에
즐기는 순간, 이곳저곳 찌른다

한때, 저리도록 찔러 파도를 부르고
거짓말처럼 쓸려 파도 타고 날아간다
있던 자리마저 날리어

한때, 부드럽게 찔러 바람을 부르고
날린 자리 주인 찾듯 바람 타고 몰려온다
또 달궈지기 위하여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매일 뜨겁게 달구며 살아
식는 것조차 모래 속 모래알이 되어

같은 시간 다른 속도로
달아올라 식어가는
숨을 마시고 뱉는 꿈을 꾼다

멍석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회계학과 이예진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앙상했던 나뭇가지는 푸른 잎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가지를 넓게 펼치고 꽃봉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벚나무는 나뭇잎이 나오기도 전에 꽃을 피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활짝 핀 꽃들을 맞이하기 위한 벚나무 나름의 고생과 노력이 담겨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한 공부, 건강을 위한 운동, 생활비를 모으기 위한 아르바이트.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새로운 해에 피어날 우리들의 꽃잎의 색을 더욱 아름답게 빛낸다. 새 옷과 신발 혹은 필기구를 사는 정도의 사소한 노력도 결국 3월, 4월에 만날 우리의 꽃을 꾸며줄 것이다. 그러니 나뭇가지가 조금 앙상해 보일지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 둘 경험을 쌓아 올리다가 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난 지도 모른 채 만개한 꽃과 함께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테니까.



대학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고 느낀다. 나는 아직도 내가 실수도 잦고, 모든 것에 어리숙한 새내기 같다. 하지만 1학년이었던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졸업반을 바라보며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쫓아서 따라가기 바빴다. 대학에 들어와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어떤가?'보다는 '이전에 비해 나는 어떤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과 비교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대학 생활을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보내기를 소망한다. 캠퍼스 생활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개강을 기다리고 있을 신입생들과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재학생들, 이제 학교를 떠나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졸업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모두를 응원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의 말들을 신문으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평소 전하고 싶었던 말이나 못했던 말들을 끄적끄적!

● 친구야 1학기 잘 보내고 군대 같이 잘 가자! 이번 학기도 파이팅! -[22학번 자치행정학과 송00]

● 첫 22학년도 학교 생활은 낯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좋게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학년도 모두 파이팅! -[22학번 경제학과 김00]

● 이번 방학에 신문사 함께 힘내줘서 고마워요!! 취재도 나가고 기사도 작성하는게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언제나 웃어줘서 저도 힘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부탁해요!! -[신문사 편집 국장]

● 학교 다니면서 즐길거리가 더 늘어날진 몰랐는데 태현이 만나서 많이 웃어서 좋습니다. 징징거리는거 받아줘서 고마워 -[언론원 징징이]

●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다. 지나간 것은 무엇이 되었던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의 나를 믿고 그 당시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거다. -[회계학과 김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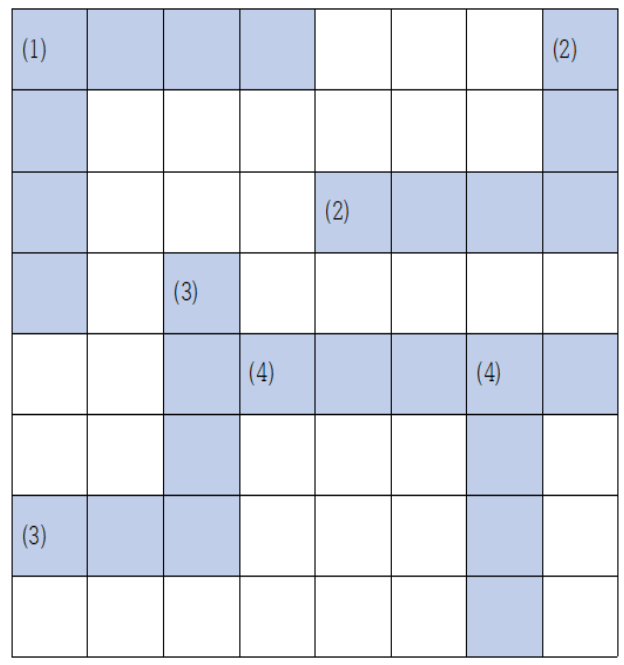
● 앞으로 대학 생활들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너희는 시작도 한 대단한 사람인데 앞으로 해나가는 것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힘든 때는 내가 정해놓은 끝만 보면 힘들 수 있으니 한 숨 고르고 주변을 둘러봐. 바쁘게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꽃들도 천천히 둘러보면 나에게 향기롭게 다가올거야. -[회계학과 익명]

●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모두 환영합니다. 또, 복학한 선배님들도 환영합니다. 학과생활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저랑도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 같아요. 다같이 친하게 지내요~!-[자치행정학과 3학년 과대]

6월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sh091401@gwnu.ac.kr로
응원, 칭찬, 축하 등을
보내주세요 !

십자말풀이



가로열쇠

(1) 학교 안에서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2)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씀.
(3) 신입생을 모아 놓고 행하는 의식.
(4) 국가가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는 장학금.

세로열쇠

(1) 학령 아동의 총인원수.
(2) 서로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 학교 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4) '학생 군사 교육단'의 장.

< 12월호 십자말풀이 정답>

가로 열쇠 정답- 1.스마트폰 2.해람인 3.자영업자 4.슬로건 5.스몸비
세로 열쇠 정답- 1.인력난 2.코로나 3.스포츠 콤플렉스 4.구직자